



1962

겨울을 앞두고 각 가정으로 연탄을 배달하고 있는 연탄 배달부

[국가기록원 제공]

월동준비

글 조보희 기자 ·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

겨울이 다가오면 과거에는 연탄이나 땔감으로 쓸 나무를 집안에 쌓아 두었습니다. 초가지붕은 지붕을 새 짚으로 단장했습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김장은 중요한 월동 준비 중 하나였습니다. 전방 군부대는 쌓인 눈을 쓸어낼 싸리 빗자루와 너가래를 준비하고 격오지는 난방용 연료, 식료품 등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.

요즘은 난방용품이나 내복, 방한용품을 미리 갖춰놓고 화단의 화초를 감싸줄 보온재를 준비합니다. 또 도로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놓습니다. 그만큼 겨울은 많은 대비가 필요한 혹독한 계절입니다. 자, 여러분은 올겨울을 날 준비가 되셨나요?



1975

땔감으로 쓸 나뭇가지를 마당에 쌓아두었다. 이 시기 대부분의 산은 민둥산이었다.

[국가기록원 제공]



1981

김장김치를 담그는 주부들

2006



전남 순천 낙안읍성에서 초가지붕 이엉 엮는 작업을 하고 있다.

1999



시민단체가 내복 입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.

2014



철원 전방 고지에서 장병들이 헬기로 공수해 온 난방유를 옮기고 있다.

2021



대형마트에서 한파 대비용 방한용품을 홍보하고 있다.